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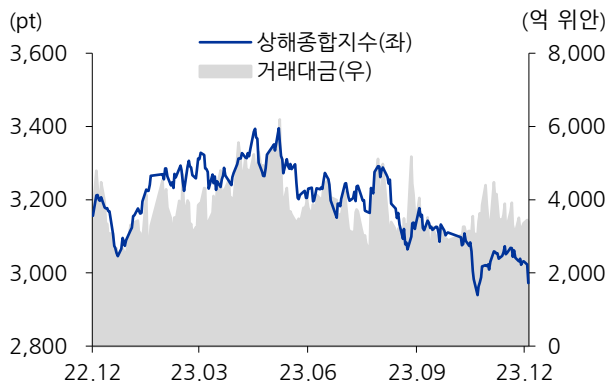
# China Focus

## 부양에도 떨어지는 신뢰

China 백은비\_02)368-6157\_ebbaek@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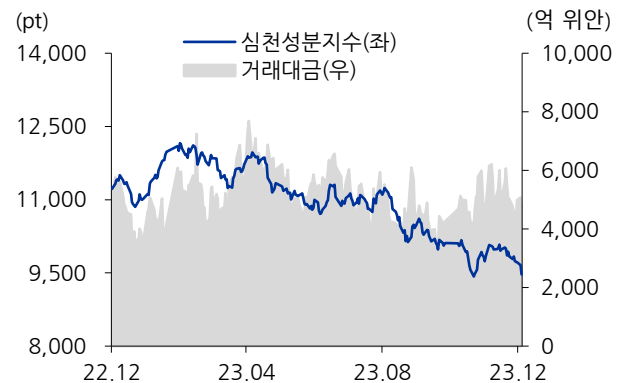
- (11/29~12/05) 상해종합 -2.2%, 심천성분 -3.7%, ChiNext -3.5%, STAR50 -3.0%, 항셱 -5.9%, H지수 -5.8%
- 중국 증시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부동산 부진 지속, PMI 부진 등의 영향으로 하락
- 중국 당국이 부동산 개발업체 유동성 공급을 위해 은행과 좌담회 개최, 은행도 부동산 기업과 좌담회를 통해 대출 지원을 약속. 중국 정부의 부양은 지속되는 중.
- 중국 당국의 여러가지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표는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는 모습. 내년까지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이 불가피한 가운데 내년 정책 강도 및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제공작회의에 주목.

상해종합지수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심천성분지수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항셱지수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항셱H지수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 부양 지속 중이지만 신뢰는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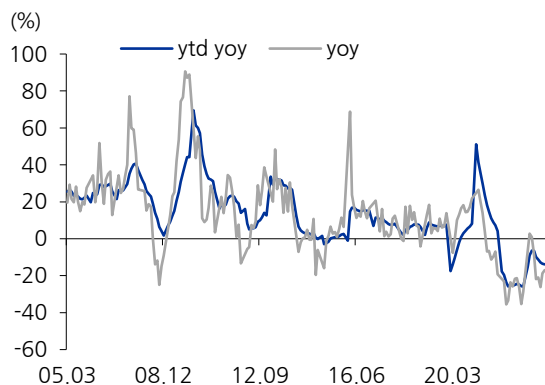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비롯해 여러가지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PMI는 10월과 11월 경기위축국면에서 머물렀고 부동산 관련 지표들도 크게 개선되는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시장은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다. 11월 중국 부동산 사위 100대 기업의 매출액은 작년 11월대비 -29% 감소했고 10월대비 -0.6% 감소했다.

11월 17일, 중국 인민은행, 금융관리감독총국, 중국 증감회는 금융기관과 좌담회를 개최해 부동산 기업의 자금조달 수요를 만족시킬 것을 촉구했다. 작년 하반기 정부가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조달 방법 중 대출 규제를 가장 먼저 해제했지만 실질적으로 은행 대출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었다. 부동산 개발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지속되면서 조속한 정책 집행을 지시한 것이다.

이후 12월 4일 농업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공상은행, 중국은행, 우체국저축은행 등 6대 국유은행은 부동산 기업과의 좌담회를 진행했다. 각 은행은 부동산 기업의 부동산 개발 대출, 개인 모기지 대출, M&A 대출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고, 국유 부동산 기업 외에도 민영 부동산 기업, 혼합소유제(국유+민영) 부동산 기업을 모두 포함해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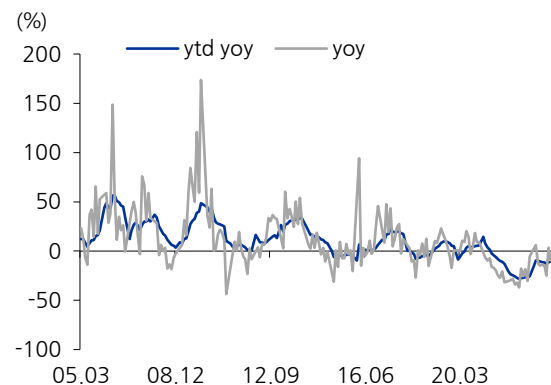
중국 정부의 부동산 경기 안정을 위한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시장의 기대치 대비 부양 강도가 약하고 가계 구매 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확인될 때까지 중국과 홍콩 주식 시장은 부양 확대 기대감과 지표의 부진함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 1. 부동산 개발업체 자금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도표 2. 부동산 개발업체 대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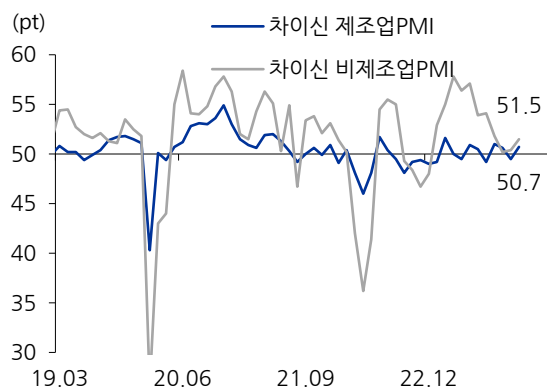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 경기 회복에 확신을 주지 못하는 선행지표

엇갈리는 지표들의 흐름도 중국의 경기 회복에 확신을 더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 기업 경기를 대변하는 11월 차이신 제조업 PMI는 50.7pt로 다시 경기확장국면에 진입했다. 차이신 서비스업 PMI는 51.5pt로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국유기업 경기를 대변하는 공식 제조업 PMI는 49.4pt로 두 달 연속 경기위축국면에서 머물렀고 전월대비 0.1%p 하락했다. 서비스업 PMI는 50.2pt로 경기확장국면에서 머물렀으나 전월대비 0.4%p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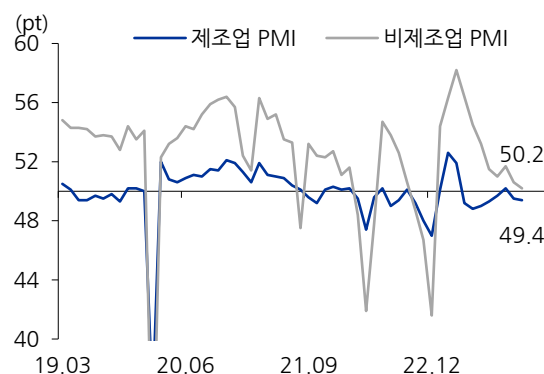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생산지수는 경기확장국면에서 머물렀으나 신규주문지수와 신규수출주문지수는 경기위축국면에서 유지했다. 대내외 수요 부진과 고용 압박 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적어도 내년 1 분기까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정책 강도와 방향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경제공작회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표 3. 11월 차이신 PMI 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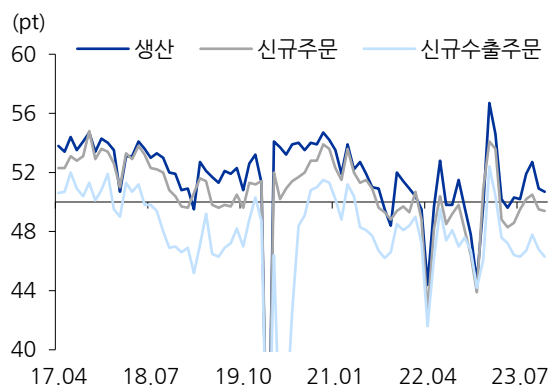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도표 4. 11월 공식 제조업 PMI는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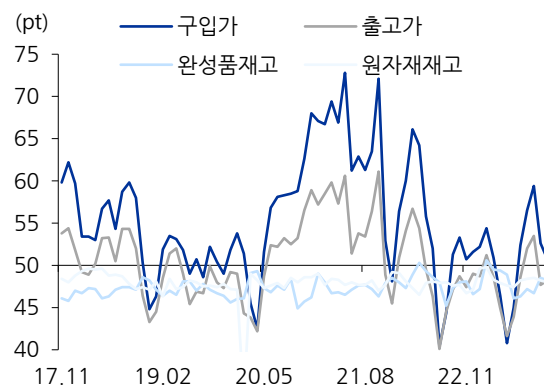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도표 5. 대내외 수요 부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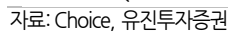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도표 6. 가격 하락, 재고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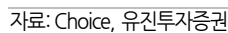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중국 A주 업종별 주간 수익률



중국 A주 외국인 자금 누적 순유입



1월 후강통 종목 중 중국 기관 순매수 Top10 (억 위안, %)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 1월 선강통 종목 중 중국 기관 순매수 Top10 (억 위안, %)

종목코드	종목명	섹터	순매수액	등락률
002281.SZ	Accelink Technologies Co.,Ltd.	통신	6.08	9.10
000762.SZ	Tibet Mineral Development Co., Ltd.	비철금속	5.05	19.24
300315.SZ	Ourpalm Co., Ltd	미디어	4.48	15.85
002176.SZ	Jiangxi Special Electric Motor Co.,Ltd.	비철금속	3.69	10.47
300308.SZ	Zhongji Innolight Co.,Ltd.	통신	2.46	6.39
300413.SZ	Mango Excellent Media Co., Ltd.	미디어	2.27	6.07
300502.SZ	Eoptolink Technology Inc.,Ltd.	통신	2.22	7.25
300573.SZ	SHENYANG XINGQI PHARMACEUTICAL CO., LTD.	제약바이오	2.05	23.01
000155.SZ	Sichuan New Energy Power Company Limited	유틸리티	2.03	6.08
002174.SZ	YOOZOO Interactive CO., LTD.	미디어	1.99	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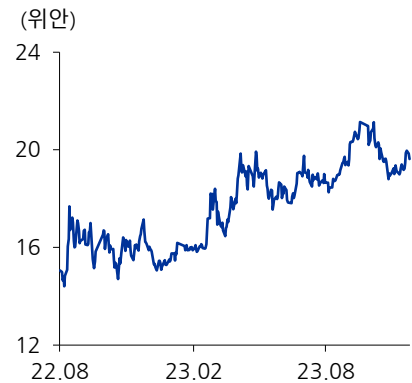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 CNOOC

코드	600938.SH	시가	9,337 억 RMB
섹터	석유화학	총액	약 169 조 원
기업개요	#석유	1H23 실적	매출액 34.8 조 원
	중국 석유 생산회사		영업이익 15.7 조 원
주요 내용	1) 1-3Q23 매출액 3,068 억 위안(-1.4%yoy), 순이익 976 억 위안(-10.2%yoy), 3Q23 매출액 1,148 억 위안(+5.5%yoy), 순이익 339 억 위안(-8%yoy) 2) 3Q 유가가 상반기 대비 상승하면서 전분기대비 실적이 개선됨 3) 동사의 원유 순생산량은 499.7 만배럴로 +8.3%yoy 증가, 사상 최대치 기록.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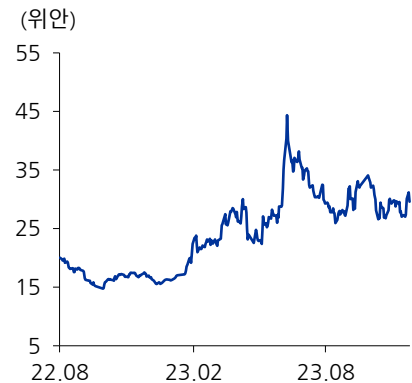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 Accelink Technologies

코드	002281.SZ	시가총액	235 억 RMB
섹터	통신		약 4 조 원
기업개요	#반도체 #광모듈	1H23 실적	매출액 0.5 조 원
	광모듈 제조사		영업이익 420 억 원
주요 내용	1) 1-3Q23 매출액 43.27 억 위안(-18.1%yoy), 순이익 4.14 억 위안(-15.8%yoy), 3Q 매출액은 15.12 억 위안(-13%yoy), 순이익 1.76 억 위안(-3%yoy)기록 2) 당사는 반도체, 부품, 모듈 등 수직계열화에 성공, 2Q22~1Q23 까지 당사는 글로벌 광부품 산업에서 4 위를 유지 3) 당사는 국내에서 비교적 빠르게 광통신 글로벌 산업체인에 진입한 기업으로 광모듈 수요 증가에 따른 성장세가 기대됨, 중국 컴퓨팅 산업 고성장애 따른 수혜도 기대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 주가



자료: Choice, 유진투자증권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